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4호 2020년 12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하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별들이 아름다워
그건 보이지 않는 꽃 한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 어린 왕자

◆ 코로나-19예방 도서관 이용 안내

- 오프라인 대출 가능!
- 대출 및 반납
- 1. 권 수: 2권
- 2. 대출 기간: 30일, 한 달!
- 3학년 학생들은 12월 14일부터 대출이 중지됨.

◆ 다대출자를 찾습니다!

1. 2학년 6반 선민*
 2. 1학년 14반 고유*
- (만화책 다대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 책과 사람



사진출처: '자화상' 상점페이지



사진출처: yes24

북
퍼
품
향
기
로
말
는
책

요즘 책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북퍼품'이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북퍼품은 책의 내용과 맞는 향을 향수로 제작한 것으로 책을 읽는 동안 향기와 함께 더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책과 맞는 향을 담은 특별한 향수기 때문에 평소 문학 작품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우리나라 시인 분들부터 데미안, 빨간 머리 앤 등 종류가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휴대하기 좋은 작은 책과 향수가 같이 있는 패키지나 소포에 들어 있는 등 특별한 상품들이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0103 김나은, 10129 최수하

◆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 결과물(12.7.) 더 많은 결과물은 p.5



◆ 독서 감상문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작가 이경혜

이 책은 유미가 죽은 재준이를 그리워하며 재준이의 일기를 읽는 내용이다. 유미와 재준이는 오래 만나진 않았지만 처음 전학 온 유미에게 먼저 다가가 준 재준이와 가장 친한 친구이다. 재준이가 유미에게 다가와 준 덕분에 유미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기쁨을 같이 나누는 친구였다.

하지만 재준이는 재준이가 짝사랑하는 소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희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멋지다고 한 뒤 재준이는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그러다가 재준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죽고 만다.

유미는 한동안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때 재준이의 어머니께서 재준이의 일기장을 들고 유미에게 먼저 읽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왜냐하면 재준이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라고 쓴 문장을 보고 충격에 유미가 재준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유미가 재준이의 일기장을 읽을 때 유미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슬펐다. 유미는 재준이가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떠나게 된 재준이를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눈물이 나오는 책이었다. 나는 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서 슬퍼하는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그 친구가 이 책을 보고 그나마 슬픔을 덜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재준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잘 극복해서 성장한 유미에게 멋지고 대단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11229 최은지

◆ 영화 소개

유열의 음악앨범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지 않은 영화인 것 같고 선생님들의 시대를 담은 로맨스영화여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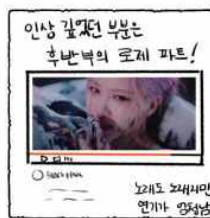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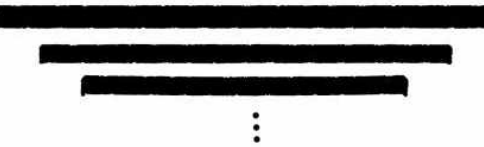
'유열의 음악앨범'은 1990년대의 감성이 잘 녹아 있어서 그 시대에 살고 계셨던 40~50대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던 10대들에게는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 10대들도 많이 찾는 영화일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40~50대분들의 설렘과 그리운 사랑이야기를 담은 영화여서 1990년대에 20~30대였던 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풋풋했던 청춘과 첫사랑을 회상하게 해준다.

'유열의 음악앨범'은 첫사랑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마치 싱그러운 여름을 연상케 한다.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답답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런 잔잔한 스토리가 더 여운이 깊게 남았던 것 같다.



11320 이다경, 11313 박채연



읽어보면 후회안하는

추천하는 책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꽃님-

주인공 은유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지만 편지가 세계를 거슬러 가 과거로 가요. 그리고 '은유'라는 주인공과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아이가 편지를 받아요. 신기한 은유와 은유는 편지를 나누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흥미롭고 제목만큼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데미안 -헤르만 헤세-

감수성이 풍부한 주인공 싱클레어가 소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을 고민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깊은 이야기에요. 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표현되어있어요. 자신을 둘러싼 껍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성장소설이에요.



굴의 맛 -조남주-

다운, 소란, 해인, 은지는 단짝친구예요. 각자의 아픔을 가진 네 친구는 함께 중학생 시절을 보내며 겪는 감정의 변화와 속마음이 진솔하게 나와있는 책이에요. 책 구절 속, "초록색일 때 수확해서 혼자 익은 굴, 그리고 나무와 햇볕에서 끝까지 영양분을 받은 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쪽일까요?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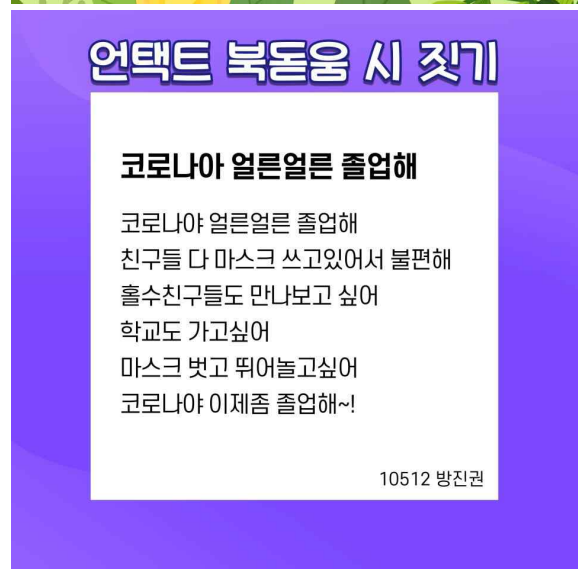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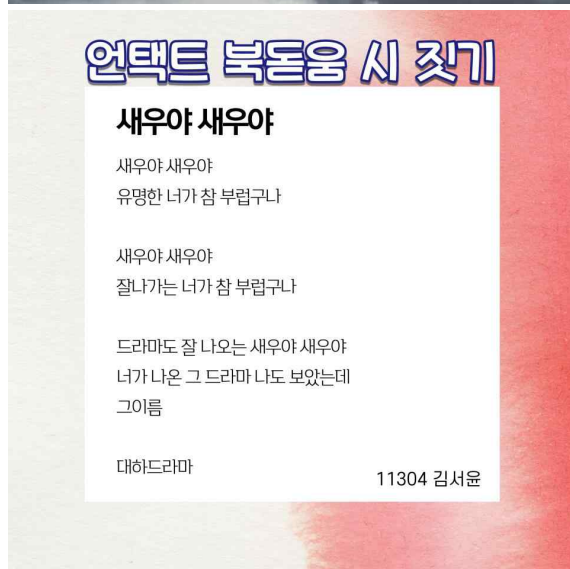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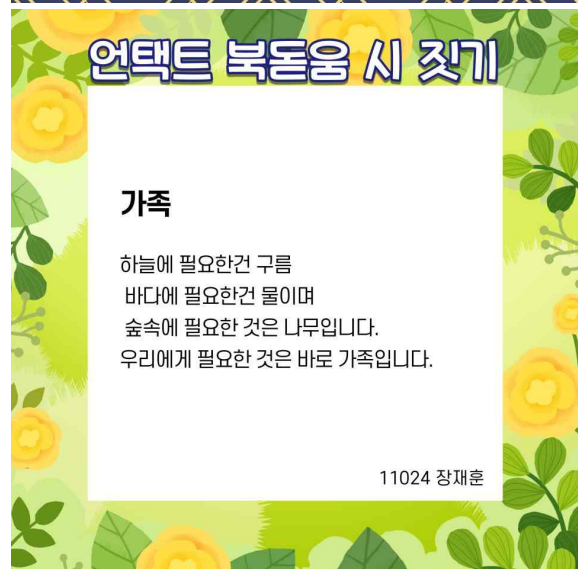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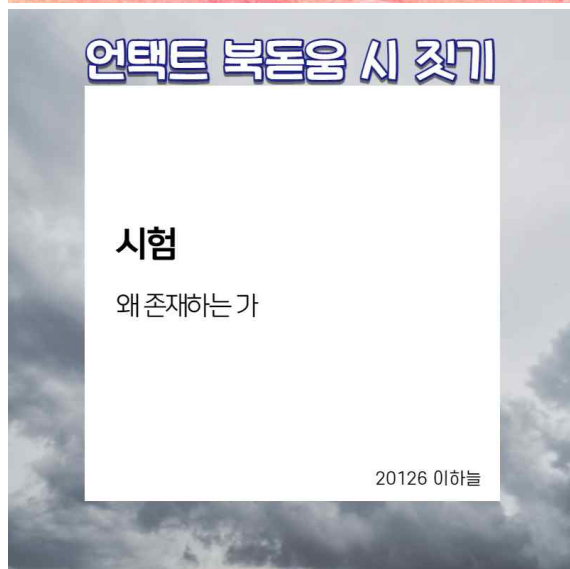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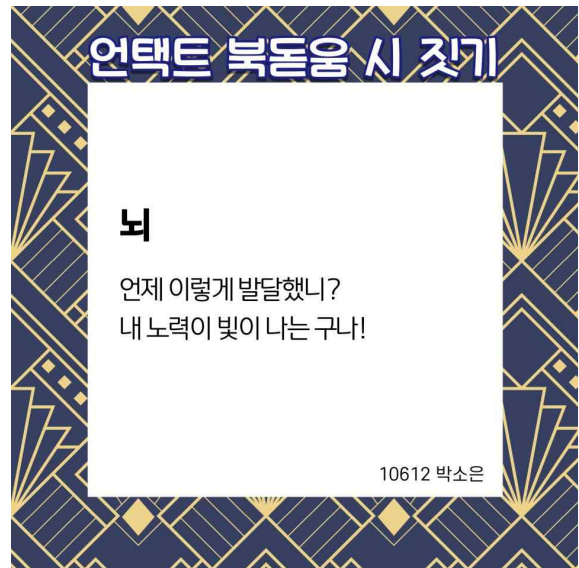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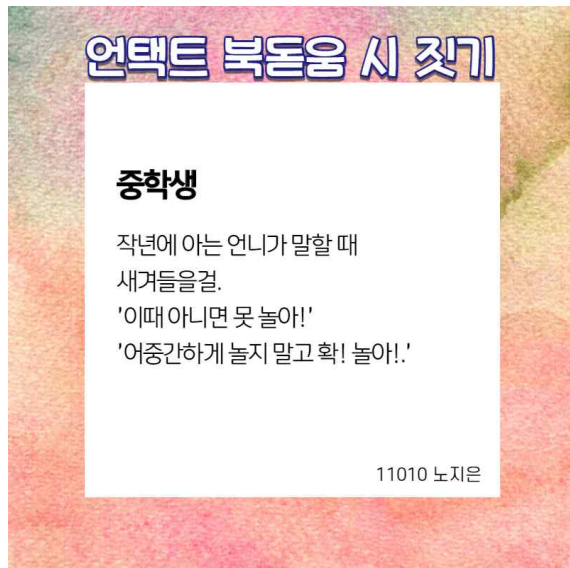
잠들어야만 올 수 있는 이 곳. 그중에서도 당연히 인기 많은 곳은 온갖 꿈을 모아 파는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에요. 주인공 페니도 원하던 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있어 가장 좋았던 꿈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책입니다. 최고의 꿈을 선사하는 달려구트 꿈 백화점은 정말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친구들의 작품구경

* 9~10월 동안 진행되었던 '시 짓기' 및 '책 속 여행' 행사 결과물입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 많았지만 조금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1. 언택트 복돋움 시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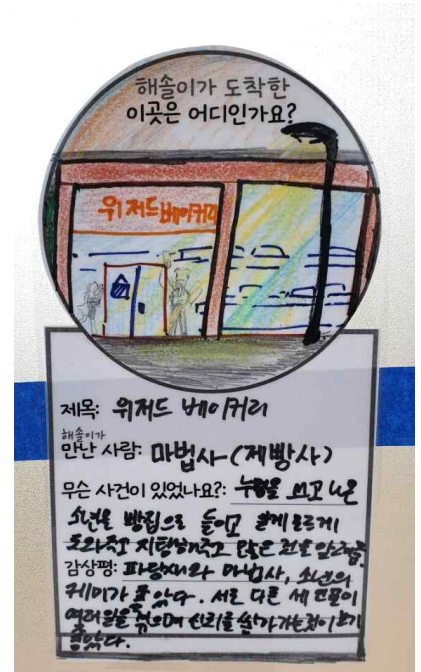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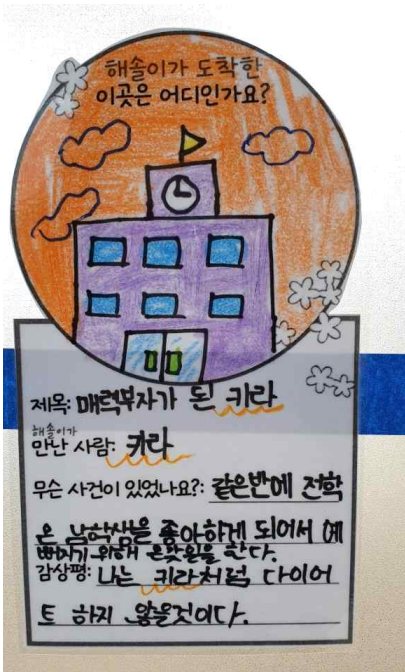


◆ 친구들의 작품구경

2. 해솔이의 책 속 여행



열심 열심



다음 도서관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